

2 종합

“수강신청 정정 기간 출석 인정하나요?”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수강 신청 정정 기간, 수업 출석 인정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생들이 정정 기간 수강 신청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개강 이후 지난 7일까지 에브리타임 게시글엔 “000 교수님 수업은

정정 기간에도 출석 점수 반영합니다”, “000 교수님 수업은 정정 기간엔 출석 체크 안 하신다”등 정정 기간 결석 처리 여부 관련 글이 약 70개 올라왔다.

학사지원팀은 정정 기간 결석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학사지원팀은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교수 재

량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다만 교무처는 매 학기 시작 직전 교강사에게 <2024학년도 2학기 개강에 따른 공지사항 안내>를 보낸다. 그 안내에는 개강 이후 최초 1주(정정 기간)에 한해 모든 강좌의 출석 인정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결석 처리와 관련해 자율 권한을 가진 교수들은 저마다 생각이 달랐다. 출석부상 결석 표시만 한다는 뜻을 밝힌 후마 유승호 교수는 정정 기간은 아직 수업 확정이 되지 않은 기간임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수강 신청 기간에 강의를 신청하지 못해 1주 차 강의에 불참했지만, 정정 기간 마지막 날

들어온 학생의 출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냐”며 “말 그대로 정정 기간”을 이유로 결석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후마 김성일 교수 또한 “정당한 학사 일정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두 교수와 달리 정정 기간 결석 처리를 진행하는 교수도 있다. 전공 수업을 담당하는 A 교수는 “학생은 첫 수업부터 모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해 첫 수업이 OT라고 해도 출석하는 것이 맞다”며 “첫 번째 수업에 출석하고 두 번째 수업에 불참하면 결석 처리를 하지만 두 번째 수업에 처음 등록해 오는 경우는 융통성 있게 처리한다”고 답했다.

이렇듯 정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교수들은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 교수는 “방학 기간 한 주가 사라지는 셈이니 불만이 많겠지만, OT 주간을 개강 전주에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김성일 교수는 “학칙에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면 된다”고 답했다.

국제캠 김성수 교무처장은 “최초 1주에 대해 모든 강좌의 출석 인정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학기부터는 학장님들을 통해서도 위 사항을 교수님들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재학생은 수강 불가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서울】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미정디)로 확대 개편되는 정보디스플레이학과에서 재학생은 기존 학과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른다. 졸업 시에도 정보디스플레이학과 학위를 수여한다.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미정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학부로 개편되면 어떤 점이 바뀌는 것인지, 과목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게시글이 많았다. 또한 한 작성자는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트랙이 신설됐나요?”라고 질문한 후 재학생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정디 교육과정은 기존 정보디스플레이학과와 달리 소재발광소자학, 구동소자시스템학 두 개 트랙으로 나뉜다. 미정디 학부생은 트랙 내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을 전부 이수하면 졸업 요건을 충족한다. 트랙 중복 선택도 가능하다. 소재발광소자학은 화학 재료 중심의 디스플레이 재료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트랙이며, 구동 소자 시스템학은 광학, 구동 시스템, 디스플레이 회로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또한 학부 내에서 정디플과 새롭게 연계되는 과목도 생긴다. 하지만 재학생은 신설 트랙 및 미정디 개설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민성욱 정보디스플레이학과장은 “기존 재학생이 미정디 트랙을 이용하거나 미정디 학위로 졸업할 수 있도록 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교육부에서 미래첨단학부 개편 시 기존 학생과 분명하게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

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휴학생, 군 제대한 학생이 미정디 수업을 듣고 학부로 졸업할 수 있는가 문의했으나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미정디는 교육부에서 첨단학과 사업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기존의 정보디스플레이학과와는 다르게 새로 개편된 학과로 바뀌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미정디 신입생은 학부제로 모집되고 교과번호도 기존과 다르게 운영된다. 다만, 현 재학생이 졸업하기 전까지 기존 교과코드는 유지된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 기존 재학생이 남아있을 2027년경까지는 유지되며, 이후에는 미정디로만 운영된다.

민 학과장은 변화 원인으로 학부 보호 및 시설 확충을 위함을 꼽았다. “기존 정원 60명일 때도 10~20% 정도는 자율전공학부에서 오는 학생이 있었다”며 “학부 개편으로 학과 교수, 시설 등을 차근차근 늘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인원이 예상치 못하게 확 늘면 운영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정디는 올해부터 첨단 학부로 선정돼 보호 학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정보디스플레이학과와 완전히 다르게 운영한다. 보호 학과란 학과 개편 시, 정원이 너무 없거나 넘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원 유입 및 유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그 결과, 미정디로 입학하는 신입생은 전과가 어렵고 자율전공학부생과 무전공 제도로 입학한 신입생, 그리고 편입학 또한 미정디를 선택할 수 없다. 타 학과·학부생 역시 미정디 전과가 불가하다.

〈자연, 소망, 그림: 마지막 황새와 송학도〉 민화와 함께 떠나는 자연 여행



송학도는 수복강녕과 입신출세에 대한 사람들의 소망과 바람을 담아내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사진=손보민 기자)

손보민 기자 sonbomin1025@khu.ac.kr

【서울】중앙박물관이 특별 전시회 〈자연, 소망, 그림: 마지막 황새와 송학도〉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연다. 전시회는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민화에 대한 소개로 전시가 시작된다. 전시회 입구를 들어서면 각 민화가 나열되어 있고 그에 대한 설명이 그림 아래에 표기되어 있다.

2부에서는 민화 ‘송학도’를 중심으로 민화 속 자연 요소의 상징, 민화가 갖는 의미가 소개된다. 송학

도는 사람들의 소망과 바람을 담아내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송학도에는 수복강녕(壽福康寧)과 입신출세(立身出世)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다. 옛 선조들은 소나무와 학을 관직과 벼슬, 선비의 덕목과 결부되어 있다고 여겼다.

중앙박물관 김희찬 관장은 잉어가 그려진 민화를 학생들에게 추천했다. 김 관장은 입신출세를 상징하는 잉어와 우리학교 정문의 명칭인 ‘등용문’을 언급하며 “정문을 들어오기 전에 잉어였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용과 같은 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부는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온 황새, 두루미, 왜가리, 백로, 잉어 등의 생물 표본을 통해 민화에 등장하는 자연의 모습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생생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마지막 순서인 4부에서는 오늘날 학생 시각으로 민화를 재해석해 창작한 콘텐츠를 전시한다. 콘텐츠 제작에는 2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전시회 제작에 참여한 이지희(사학 2021) 씨는 “민화를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